

# “경사로 주차 위험 여전”... 하준이법 ‘유명무실’

## 광주·전남 5년 5178건 사고...홍보·시설보강 필요 고임목·조향 의무 모르쇠...안전사고 발생 우려 커

경사로에 주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고 바퀴를 벽 쪽으로 틀어 세우도록 한 이른바 ‘하준이법(주차장법 제6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6년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가 상당수가 법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경사로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광주·전남에서 발

생한 경사로 교통사고는 모두 5178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1750건, 전남 342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143건(광주 369건·전남 774건), 2021년 1069건(광주 358건·전남 711건), 2022년 1010건(광주 346건·전남 664건), 2023년 1020건(광주 347건·전남 673건), 2024년 936건(광주 330건·전남 606건) 등으로 매년 1000건 안팎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광주 서구 양동건어물시장 경사로.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 주차장 경사로에 세워둔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네 살 어린이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운전자가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날 광주 서구 양동건어물도매시장 주변 경사로에는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었지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 방향을 조정해 차량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한 운전자는 흰색 실선 위 경사로에 차량을 세운 뒤 그대로 자리를 떴다. 해당 차량은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았고 바퀴도 벽 쪽으로 돌려놓지 않은 상태였다.

대다수 운전자들은 법 자체를 모르거나 주차 브레이크만 채우면 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운전자 이모씨(30)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강화한 민식이법은 알지만 하준이법은 처음 들었다”며 “차량에 고임목도 없고 보통 사이드브레이크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구 화정동과 동구 계림동 주택가 경사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는 주차금지 표지판만 설치돼 있을 뿐 경사로 주차 시 안전 조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이나 홍보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동구 계림동의 한 경사로 주차장 역시 여러 대 차량이 주차돼 있었지만 고임목을 사용하거나 바퀴 방향을 조정해 차량을 거의 없었다. 주민들은 경사로 주차 안

전에 대한 인식 부족이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근 주민 박모씨(54)는 “경사로에서 차량이 조금만 움직여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많은 주택가에서는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시설 확충과 범구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공영 노상주차장을 중심으로 안내 표지판과 고임목 보관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



“선거제도 개혁하라” 정치개혁을 바라는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와 진보개혁정당은 1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성 확대 선거제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주 동구 교통사고·사망자 증가

2024~2025년 각각 13.5%·80% 늘어

지난해 광주 동구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부상자 수가 모두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나들이 차량 증가와 보행자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앞두고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504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3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 70대 이상이 7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보행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아 고령 보행자 사고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4년 444건보다 13.5%(60건) 증가했다. 하루 평균 1.3건꼴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망자와 부상자 역시 전년보다 각각 80%(4명), 19.5%(120명) 늘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차량 간 충돌이 3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3명이었다. 이어 차대 사람 117건(사망 6명), 차량 단독 사고 21건 순이었다.

법규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 86건, 안전거리 미확보

40건, 중앙선 침범 25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차종별 사고는 승용차가 36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화물차 41건, 이륜차 29건 등이었다. 12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는 2024년 2명에서 지난해 8명으로 크게 늘었다.

교통약자 부상자도 어린이 25명, 노인 164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9명과 44명 증가했다. 월별로는 9월(52건)에 사고가 가장 많았고 요일별로는 금요일(90건)에 집중됐다.

이에 동구는 올해 ‘보행자 중심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목표로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추진한다. 총 53억9700만원을 투입해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 대인시장, 전남여고 등 8곳 등에 노면 발광 LED 조명과 바닥 신호등, 음성 안내 시스템을 갖춘 스마 트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보행사고 발생 지점과 노인보호구역 중심을 스마 트횡단보도와 교통안전 시설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라며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만큼 주요 교차로에서 캠페인을 진행해 안전운전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 ‘계속 발견되는 유해’ 무안공항 재개항 먹구름

### 전남경찰청 폴리스라인 설치... 공항 출입 통제 전면 재수색 가능성 ↑... 상당한 시간 소요될 듯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전남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현장 전면 재수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유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전남부터 추가 유해 발견 가능성을 고려해 공항 외곽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범위는 사고 지점인 로컬라이저 시설 인근부터 시작되는 갈대밭, 유도등과 인근 공항 외곽도로 등으로 약 5만2892㎡(1만6000평)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경찰과 소방, 군이 참여하는 합동 수색이 진행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시간이 이렇

게 지났는데도 유해가 계속 발견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와 유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무안공항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항해야 한다”며 관련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참사 원인 규명과 유해 수습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무안공항 재개항 논의 역시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 제기된 전면 재수색은 1차 유해 수습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만큼,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참사 발생 이후 1년이 지난 상황이어서 단순 표면 수색이 아닌 일정 깊이까지 지면을 파내는 방식의 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구체적인 재수색 시점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전면 재수색이 이뤄질 경우 전남도가 목표로 세운 오는 8월 정상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사고 현장에서는 사고기 잔해 분류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해당 작업은 오는 3월 종료될 예정이며, 아직 분류되지 않은 잔해 토크는 10여 개로 알려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고문의 062)370-7070  
구독문의 062)370-7080

# 뉴스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광남일보를 구독해 주세요



# FACT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3-4층 [우/61234] · T.062)370-7000 · F.062)370-7005

